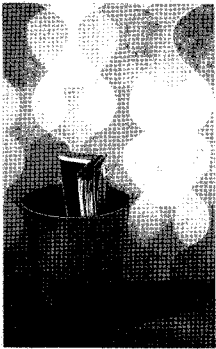


생활문화



- [위대한결단—루빈 카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 [위대한결단—피프티 센트]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성의 화신
- [위대한결단—윌리엄 보잉] 항공기 산업의 선구자
- [위대한결단—본 빌스] 복종적 사랑을 끌어내는 총성 마케팅
- [위대한결단—정세영] 한국 자동차의 대부 '포니 정'
- [위대한결단—캐서린 그레이엄]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낸 '영원한 신문인'
- [위대한결단—오노 도후] 개구리 한 마리에게서 인생을 배우다

Life & Culture 01 [위대한결단—루빈 카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1999년 출시된 데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 ‘허리케인 카터 (원제:Hurricane)’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 영화는 세계 미들급 챔피언 후보로 촉망받던 권투선수 루빈 카터(Rubin Carter : 1937~)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22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무죄로 석방되기까지의 실화를 다룬 영화다.



카터는 살인누명을 뒤집어쓰고 그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갇혀 지냈으나 자신의 진실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밥 딜런 등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운동을 펼쳤으나 흑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백인들에 의해 석방되지 못했다.

카터의 일생은 참으로 기구했다. 1949년, 열한 살의 소년 카터는 친구를 성추행하려는 백인을 보이 스카우트 칼로 찌른 죄로 소년원에 갇혀서 7년을 보내야 했다. 청춘을 소년원에서 썩힐 수 없다고 결심한 그는 탈출해서 고향에 갔으나 탈출 사실이 발각되어 남은 형기를 다시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1954년, 육군 공수부대에 입대해 새 인생을 결심하고 복싱에 전념한다. 빠른 몸놀림과 번개 같은 주먹은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고, 프로 복서로 명성을 날리게 됐다. 1963년 12월 당시 세계 웰터급 챔피언 에밀 그리프스를 첫 라운드 KO로 이기는 등 선전했으나 왜곡된 판정으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또 다른 불운이 찾아들었다. 세계 미들급 타이틀 매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66년 6월 17일, 그는 트리플의 한 술집에서 갑자기

백인 세 명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당한다. 공개롭게도 그 사건은 카터가 그곳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는데 지독한 인종 차별주의자였던 델라 페스가 형사는 사건 당일의 모든 증거를 조작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만든다. 옥살이를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신념으로 뜻을 굽히지 않지만, 현실은 정의와 진실이 외면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자신의 존엄성과 주인의식을 잃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다. 여느 죄수처럼 TV, 라디오, 포르노 잡지 같은 오락거리를 즐기지 않았다. 대신 미친 듯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지성과 교양을 다져 나갔다. 카터는 옥중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서전 ‘16라운드(The 16th ROUND)’를 쓰고 출간하기에 이른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흑인청년 레스라 마틴(Lesra Martin)이 우연히 루빈의 자서전을 읽고 감동해서 환경운동가 친구들과 함께 구명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여러 조작된 증거물들을 발견하고, 연방법원에 상고한다.

1985년 7월, 뉴저지 주 연방법원의 사코킨 판사는 카터의 유죄판결이 거짓 증언과 조작된 서류에 의한 판결이었음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한다.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카터는 아무 것도 없었으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당당한 자유인이었다. 석방된 1년 후, 1964년의 왜곡된 판정에 따라 획득하지 못했던 WBC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차게 됐다. 죄수의 권익 보호자로 성공을 거두었고 여러 대학으로부터 명예 법학 학위도 받았다.

Life & Culture 02 [위대한결단—피프티 센트]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성의 화신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마약을 팔던 어머니는 8살 때 살해당했다. 줄지에 고아가 된 소년 피프티 센트(50 Cent : 본명 Curtis James Jackson, 1976~)는 뉴욕의 뒷골목에서 마약을 팔며 생존의 방식을 터득해야 했다. 마약 밀거래와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감옥을 드나들던 소년은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가수가 되기로 결심하고 친구 집 지하실에서 랩송을 만들며 래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그 젊은이는 발표하는 곡마다 빌보드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인기 최정상의 스타 래퍼가 되었고, 마이클 잭슨의 뒤를 이어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가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출판, 의류, 비디오게임, 의약품에 이르는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피프티 센트의 전설적인 성공담에 도취하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2000년 5월, 마약판에서 손을 떼고 음악계로 진출하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무려 아홉 발의 권총 세례를 받았다. 악명 높은 마약 갱스터들의 소행이었다. 병원으로 후송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턱을 관통한 총탄 때문에 가수로서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총알 파편이 혀에 박히는 바람에 목소리에서 ‘숫’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또 입술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느릿느릿 랩을 해야만 했다. 바로 그 역경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고 ‘죽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 하나’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뒷골목 생활을

하며 날마다 폭력과 공격에 맞서야 했던 그는 우선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려움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감정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보아왔다.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자 ‘두려워할수록 세상은 더 거칠고 냉혹해진다’는 각성이 찾아 왔다.

“우리가 사는 곳은 아득한 꿈속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다. 단호히 두려움을 떨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는 자신의 최대 강점이 무언지 알고 있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게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노력 대신 단점을 그대로 장점으로 승화시키기로 했다. 새로운 랩 스타일은 ‘숫 소리’ 덕분에 더 느긋하면서도 한편으론 더 위협적이었다.

2003년, 그의 첫 상업 앨범 ‘Get rich or die tryin’는 발매 4일 만에 87만장이 팔렸고, 2005년 발표한 두 번째 앨범은 발매 4일 만에 114만장이 팔려나가면서 이 분야에 신기록을 달성했다. 오늘날 피프티 센트는 세계적인 톱 래퍼로 성장했고, 비디오게임과 영화, 광고 등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피프티 센트를 성공시킨 원동력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였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할수록 세상은 더 거칠고 냉혹해 진다. 대

답해 질수록 세상은 내 편이 될 것이다.”
그는 매년 닥쳐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강인

한 모습으로 거듭났고 본인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높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Life & Culture 03 [위대한결단—윌리엄 보잉]

항공기 산업의 선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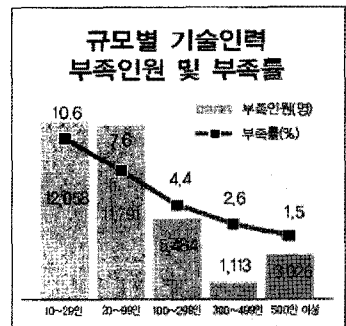
보잉(Boeing)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이
자 미국 최대의 수출기업이다. 이 회사는 1915년 시
애틀의 한 보트창고에서 시작됐다.

1910년 LA에서 처음 열린 에어쇼를 본 28세의 청
년 윌리엄 보잉(William E. Boeing; 1882~1956)은 그
때부터 비행기에 빠져들었다. 마침내 시애틀의 한
클럽에서 항공학에 조예가 깊은 해군 엔지니어 조지
웨스터벨트를 만난 것이 항공세계에 더욱 깊이 빠져
드는 계기가 됐다. 보잉은 목재상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많은 돈을 번 부자여서 비행기를
만들 자금은 넉넉했다.

두 사람의 의기투합해서 유니언 호수 부근의 보트
창고에서 비행기 제작에 들어갔다. 1916년 7월 15일,
첫 비행기 제작에 성공했다. 보잉은 자신이 직접 비
행기를 몰아서 400미터를 나는데 성공했다. 용기를
얻은 그는 ‘보잉 에어플레인’이란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비행기 제작에 들어갔다. 처음 7명으로 시
작한 회사는 28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
기 제작에는 성공했으나 판로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

보잉을 구한 것은 1917년 발발한 전쟁이었다. 미국
해군이 비행기 50대를 주문한 것이었다. 납기를 맞추
기 위해서 직원은 337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전쟁
이 끝나고 부터였다. 평화 시기가 오자 모든 주문이
뚝 끊어졌다. 친지들은 문을 닫지 않으면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말
렸으나 그는 자
기 재산을 팔아
서 급료를 지불
했고 침실 가구
와 모터보트를
제작해 가면서
회사를 유지했



다. 일자리를 불안해하는 직원에게 보잉은 말했다.

“나의 전 재산을 팔면 2년 동안 지급처럼 회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회사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을 것이다.”

보잉은 예리한 눈으로 항공 시장을 내다보고 있었
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과연 2년도 지나기 전에
넘쳐나기 시작했다. 보잉은 미국 우정국의 계약을
따내서 자사 항공기로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를 오
가는 항공우편 사업을 시작했고, 승객 전용 수송기
모델 80을 내놓고 승객 수송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부터 보잉은 사무실에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
테스의 다음과 같은 격언을 걸어 놓았다.

“오직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권위도 존재하지 않
는다. 사실은 정확한 관찰에 의해 얻어진다. 모든 추
론은 오직 사실에 기초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항공기 사업은 인명이 가장 우선되는 사업이었기
에 오로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밀한 제품만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잉은 이 격언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세계 최대의 민간항공기 제작사로 발전했다. 그 후 사실에 기초하여 비전을 세우는 것은 보잉의 성공비결이 됐다. 보잉은 1934년에 항공기 산업에서 은퇴했으나, 보잉 제국의 토대는 오직 정확

한 사실과 과학에 근거한 철저한 실천이었다.

오늘날 보잉은 NASA의 우주왕복선과 국제 우주 정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됐다. 오늘날 세계의 하늘을 나는 여객기 4대 중 3대는 보잉이 만든 것이다.

Life & Culture 04 [위대한결단—본 빌스]

복종적 사랑을 끌어내는 충성 마케팅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dson)은 미국을 상징하는 모터사이클 회사다. 1903년 설립된 이 회사는 1920년 세계최대의 모터사이클 회사로 성장했고,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남성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할리의 제품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모터사이클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1960년대 혼다 등 일본 업체의 저가 공세로 입지가 흔들리면서 90%에 이르렀던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5%까지 감소했다. 결국 1969년 레저 장비 업체 AMF에게 경영권을 인수 당하고 품질관리의 실패로 시장점유율이 3%대로 추락했다.

1981년, 이를 보다 못한 임원 13명이 회사를 다시 사들이는 결단을 내렸고, 본 빌스(Vaughn Beals :1928)를 CEO로 선임했다. 빌스는 할리만이 지니고 있는 '강한 남성미와 거친 야성'을 할리의 브랜드 컨셉으로 삼았다. 그리고 과거에 할리에 열광하던 고객충성도를 끌어내기 위해 '진정한 남자는 블랙을 입는다'고 광고했다. 그는 직접 오토바이 경주에 참여하고, 행사를 주도하면서 고객의 불만에 귀를 기울였다.

할리의 임원진은 스스로 몸에 문신을

새기고 가족점퍼를 걸치고 충성 고객들을 모아 '할리 오너스 그룹(Harley Owners Group, HOG)'라고 불리는 동호회를 결성했다. '독수리는 홀로 비상한다' 등의 가슴을 뛰게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브랜드에 담긴 '자유'와 '저항정신'을 알리며 랠리에 나섰다. 첫째 'HOGs'의 멤버는 3000명에 불과했지만, 2년 후에는 6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충성도 높은 고객인 'HOGs'의 열렬한 지원 아래 할리는 부활하기 시작했다.

할리는 효율적인 성능을 앞세운 일본 업체들에 맞서 기능 대신 오감(五感)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할리의 대표적인 무기는 '할리 사운드'로 불리는 할리만의 독특한 특유의 큰 엔진 소리였다. 할리는 온몸을 울리는 이 엔진소리를 흥분된 심장 박동에 비유하며 '자유'의 상징'으로 삼았다. 어떻게든 소리를 줄여보려는 일본 제품들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간 것이다.

배기량 883cc 이상의 V형 트윈엔진에서 나오는 진동과 말발굽 소리와 비슷한 독특한 엔진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마니아층을 만들어냈다. 디자인에서도 과거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



하면서 무게감 있는 디자인의 중량급 모터사이클을 고수했다. 이러한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전략은 할리가 재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HOGs’의 멤버는 2009년 4월, 전 세계 130개국에 회원이 140만 명을 넘어섰다. ‘HOGs’의 멤버들은 브랜드 충성도 NO1의 마케팅의 대명사가 됐다. ‘HOGs’의 멤버들은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랠리 행사를 갖는데 명예를 보다 중요시하기에 비용과 인력을 모두 자체 부담으로 행사를 치른다.

할리 데이비슨은 ‘HOGs’로 인해서 컬트(cult) 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성장했고, 충성을 넘어 열광하는 ‘HOGs’는 모든 브랜드의 로망이 되어갔다. 1989년, 드디어 할리는 시장점유율 60%를 기록하면서 업계 최고 자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2000년, 혼다와 야마하를 제치고 세계 1위 모터사이클업체 자리를 되찾았다. 할리는 적극적인 문화 코드의 전파로 위기를 극복하고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다.

Life & Culture 05 [위대한결단—정세영]

한국 자동차의 대부 ‘포니 정’

1975년 12월 1일은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룩한 날이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의 독자 모델 자동차인 포니(Pony)의 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1966년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포드자동차와 기술 계약을 맺고, 1968년 현대자동차 1호차인 ‘코티나’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포드 측의 기술 이전 회피로 인해서 ‘코티나’는 조립 생산품에 지나지 않았고 품질도 엉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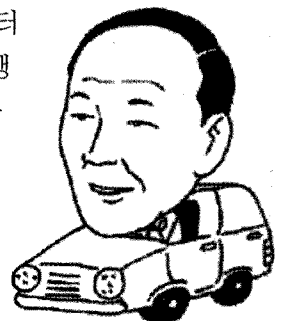
현대는 독자 개발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자동차의 정세영 사장은 우리 기술로 고유브랜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만형이자 그룹 회장인 정주영에게 포드와 결별할 것과 순수 국산차 개발을 제안했다.

정주영 회장은 그의 의견을 따랐고, 그때부터 정세영은 외국회사에 예속되지 않고 기술 독립을 하겠

다는 야망을 불태웠다. 정세영은 자체 모델의 자동차를 만들려면 기술품질수준을 처음부터 세계 수준(Global standard)으로 높여 도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전문 설계 용역회사인 ‘이탈 디자인’에 스타일링 및 설계 용역을, 유럽 자동차계의 최고 스타일리스트 ‘조우지 아로’에게 수출도 할 수 있는 미래형 모델 디자인을 의뢰했다. 마침 포니가 제작되고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1974년 10월 30일부터 ‘제55회 국제자동차박람회’ 즉 국제모터쇼가 열리게 되어 있었다. 정세영의 머릿속에서 ‘토리노 모터쇼에 포니를 보내자!’는 생각이 번갯불처럼 스쳐지나 갔다.

정세영은 자신의 자동차 외길 32년을 회고한 ‘미래는 만드는 것



이다'란 책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내 머리 속에는 오직 완성된 포니 모습만이 어른거렸다. 눈을 감으면 ‘자랑스런 우리의 조랑말 ‘포니’가 한국의 거리를, 나아가 세계의 도로를 누비는 모습이 또렷이 그려지곤 했다.”

국내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는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 현대는 1단계 조선소 건설비를 훨씬 초과하는 1억 달러를 쏟아 부어 연산 5만6천 대 규모의 국산 종합 자동차 공장을 완성했다.

미침내 정세영의 기술자립 의지는 최초의 국산 고유모델인 포니를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다. 포니는 한국인의 취향에 맞으면서 내구성이 좋아 국내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하고, 1984년 단일차종으로 50만대 생산을 돌파했다.

1986년 미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고유브랜드 ‘엑셀’의 인기는 대단했다. 미국진출 약 4개월 만에 5만 2천4백대가 판매되어, 1958년 프랑스 르노사가 세운 수출개시 1년 간 최다판매기록을 불과 4개월 만에 갱신하는 기록을 세웠다. 1986년 미국에 엑셀을 수출한 첫해 20만3천대를 판매해 미국 10대 상품에 선정됐다.

그해 ‘뉴욕타임즈’는 정세영을 “산업계의 숨은 영웅” 6명 중 한 사람으로 선정했다. 1995년,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는 정세영을 ‘오토모티브 뉴스 올스타’로 선정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가 설립될 때부터 사장을 맡아 32년간 현대자동차를 세계적 자동차 기업으로 키운 정세영은 조카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물러났으나, 지금도 그는 ‘포니 정’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부로 기억되고 있다.

Life & Culture 06 [위대한결단—캐서린 그레이엄]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낸 ‘영원한 신문인’

미국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다. 이 신문 그다지 주목받는 신문이 아니었다. 이 신문은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언론인 캐서린 그레이엄(Katharine Graham : 1917~2001)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 됐다.

캐서린은 1917년 뉴욕에서 태어나 시카고대학교를 졸업한 뒤 ‘샌프란시스코 뉴스’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그녀는 1939년 아버지가 운영하는 ‘워싱턴 포스트’로 전직했으나, 결혼을 하면서 이후 20여 년간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냈다.

그런데 1963년, ‘워싱턴 포스트’의 경영을 맡고 있던 남편 필립 그레이엄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권총 자살을 한 후,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신문경영인으로 나서야 했다. 캐서린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채 헤어나기도 전에 신문 발행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철저한 변신을 하게 된다.

캐서린은 1971년 미국 국방부가 베트남전쟁 수렁 중 거짓정보로 의회를 속인 것을 입증하는 비밀문서의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미국 정치판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두 번째 히트는 너무도 유명한 ‘워터

게이트 사건'의 보도였다. 1972년 6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던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과한들이 잡히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불거졌다. 닉슨 정부는 언론들에게 더 이상의 보도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언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던 캐서린은 그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브래들리 편집국장과 기자들이 취재한 후속 보도를 기사화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워터게이트 보도를 막기 위해 '워싱턴 포스트'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허기를 취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해냈으나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그녀는 어떤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워터게이트사건을 파헤쳐 보도함으로써 마침내 닉슨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캐서린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됐고,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성장했다. 다른 신문사 사주들이 신문의 광고나 판매 부수 등 비즈니스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캐서린은 일류신문 만들기엔 온 정



성을 다했다. 그녀는 하루에도 3~4번씩 편집국에 들러 좋은 기사가 없는지를 확인하며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결국 발행인과 기자, 편집자들의 벽은 사라졌고, 모두 의기투합해서 좋은 신문을 만들어 내는데 매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캐서린은 경영능력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녀는 '신문이 재정적으로 자립해야만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공익도 있다'는 경영

관을 갖고 있었고, 놀라운 수완을 발휘해서 자신이 경영하는 기간 동안 '워싱턴 포스트'를 몇 배나 신장시켜서 신문, 잡지, TV, 케이블 등 미디어 기업으로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를 창출해냈다.

2001년 7월 17일, 캐서린이 사망하자 미국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영결식을 생중계할 정도로 그녀는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영국의 신문 발행인 노스크리프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모든 미국 신문들 가운데 소유하고 싶은 것은 '워싱턴 포스트' 뿐이다. 그것은 이 신문이 국회의원들의 아침 식탁에 오르는 신문이기 때문이다.”

Life & Culture 06 [위대한결단—오노 도후]

개구리 한 마리에게서 인생을 배우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젊은 시절에 빛을 보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 뒤늦게 성공하는 늦깎이가 있다. 그들의 젊은 시절을 들여다보면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점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았고, 인

내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아실현에 성공하고 있다.

일본의 3대 서예가 중 한 사람인 오노도후(小野道風: 894~964)는 화투 비광에 나오는 우산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비광 속에는 개구리와 버드나무,

우산을 쓴 오노도후가 그려져 있다. 마지막 12월 그림에 오노도후 이야기를 그려 놓은 것에는 무슨 뜻이 숨겨져 있을까?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 고위 관리의 아들로 태어난 오노도후는 어려서부터 서예에 재능을 보여서 훌륭한 스승에게서 글씨를 배웠다. 그러나 스승은 한 번도 그를 칭찬해주지 않았다. 하루 종일 글씨 쓰기에 매달렸지만, 스승은 그의 글씨를 보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붓을 곧게 가지고, 글자의 1점 1획에도 마음을 다해 전력하지 않으면 숙달될 수 없다. 더 잘 쓰도록 하라.”

오노도후가 아무리 글씨를 잘 써도, 몇 해가 지나도록 스승은 도통 칭찬을 해주는 법이 없었다. 오노도후는 진도가 안 나가고 발전이 없자 공연히 짜증이 났다. 그는 그만 자신이 없어져서 붓을 꺾어버리고 스승의 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처량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을 향해 걸던 오노도후의 눈에 문득 버들가지 위로 뛰어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개구리 한 마리가 띄었다. 개구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향해 계속 뛰어올랐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거듭 뿔뿔이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오노도후는 비에 젖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동작을 지켜보았다.

‘저 놈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몇 번 버둥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흙탕물에 쓸려 가겠지.’

오노도후는 쭈그리고 앉아서 구경을 했다. 그런데 개구리는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계속 미끄러졌으나....포기하지 않았다. 개구리는 벌써 수십 차례나 실패를 반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버들가지 위로 뛰어오르는 데 성공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작은 발을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말 할 수 없이 만족스런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그것을 지켜본 오노도후는 가슴에 벅찬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런 미물도 저렇게 죽을힘을 다해 나무에 기어 오르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개구리만도 못하겠구나. 참 부끄럽다! 그래! 나도 끝내 이루고야 말리라!’

오노도후는 그 길로 다시 서당으로 돌아가 필사적으로 서예 연습에 매달렸다. 그는 힘들 때마다 버들가지 위로 뛰어오르던 개구리를 생각하며 성공을 서두르지 않고 매일 꾸준히 연습을 거듭했고 마침내 일본 제1의 서예가가 되었다. 그의 서체는 전통적인 중국양식에서 탈피해서 독자적인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했고 일본 서예의 전형을 이룩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오노도후의 927년 작품인 ‘지쇼대사시호척서(智證大師諡號勅書)’는 현존하는 일본 서예 작품 중에 최고 걸작으로 유명하다.

